

중국의 기술업 억만장자 분석^{†,‡}

An Analysis of Chinese Technology Billionaires

손운호(Yunhao Sun)*, 설성수(Sung-Soo Seol)**

목 차

I. 서 설	V. 기술업 억만장자
II. 기존연구	VI. 기술업 억만장자 결정요인
III. 중국의 시장경제화	VII. 논의 및 결론
IV. 억만장자 분포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국에서의 기술사업화의 결과를 보는 연구로, 기술업 억만장자를 분석한다. 그러나 이 분야 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술사업화론에서 관심을 갖는 초기 과정보다 기술업 억만장자에 대한 거시분석을 먼저 다룬다. 즉, 존재형태, 다른 업종 부자들과의 비교, 중국이라는 특수성, 세계적인 기술업 부자와의 비교 등을 다룬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100억 위안 이상 억만장자는 2004년부터 등장한다. 둘째, 초기에는 불법과 부패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자신의 노력에 의한 부자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부동산업과 제조업 부자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이지만 기술업, 의약업, 금융업 부자들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넷째, 이들은 광둥성, 절강성과 북경시 및 상해시에 주로 집결되어 있다. 다섯째, 기술업 억만장자 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GDP와 대미환율이었다. 여섯째, 기존 이론들과의 관계에서 본 연구는 억만장자 연구의 제5유형이라 부를 수 있고, 거꾸로 보는 기술사업화 접근의 한 유형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부의 축적은 개념적으로는 기술기회와 시장기회 및 정책기회의 활용이라 판단된다.

핵심어 : 기술업, 억만장자, 중국 기술업, 중국 억만장자, 중국 개혁개방정책

※ 논문접수일: 2018.9.5, 1차수정일: 2018.9.28, 게재확정일: 2018.10.9

* 한남대 탈메이지교양대학 교수, syh8925303@gmail.com, 042-629-7565

**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s.s.seol@hnu.kr, 042-629-7608, 교신저자

† 본 연구의 일부는 한남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본 논문을 사전에 읽고 코멘트를 해준 송충한, 김찬호박사께 감사드린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hina's technology billionaires. However, this study does not show the accumulating process of wealth in each of the Chinese billionaires, because there are many technology billionaires, but only deals with the macro analysis of the technology billionaire; the pattern of existence, comparison with other industries, the process of wealth creation reflecting China's particularity, and comparison with the world's technology billionair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10 billion yuan of Chinese billionaires will emerge from 2004. Second, in the early days, illegal and corruption made rich, but the wealth of own efforts has gradually increased. Third, the real estate and manufacturing billionaires are still strong overall, but the growth of billionaires in technology, medicine and finance industry is remarkable. Fourth, in the case of the top 10 richest, four are from real estate, four from technology, and two from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Most technology billionaires are in Guangdong, Zhejiang, Beijing and Shanghai.

The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billionaires are GDP, exchange rate to US Dollar and Shenzhen Stock Index, and those of technology billionaire are GDP and exchange rate. Given the relationship with existing theories, this study can be called the fifth type of billionaire research. Conceptually, the main reason for accumulating wealth is the search for policy opportunities, market opportunities and technology opportunities.

Key Words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ory, Technology Business, Technology Billionaire, Billionaire Research, Chinese Technology Billionaire

I. 서 설

기술사업화를 통해 어느 정도나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많은 언론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언급하거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언급해 왔다. 2018년 들어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120억 달러를 보유하며 세계 최고의 부자(www.forbeslists.com)로 올라섰고, 애플은 최초로 시총 1조 달러 기업이 되기도 하였다(Gurman et al., 2018). 이러한 예는 기술사업화의 궁극적인 결과가 어느 수준인지를 짐작케 한다. 사실 2018년 Forbes 리스트에 오른 미국 10대 부자들은 워렌 버핏과 같은 전문 투자자, 석유업에서 출발한 코흐형제, 미디어의 마이클 블룸버그가 있지만 나머지 6명은 기술사업화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많은 기술사업화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부자들에 대한 언급과 분석을 찾아보기 힘들다. 기술사업화를 시장출시까지의 준비단계로만 여기거나 초기 성장단계까지만 언급하는 것이 보통의 예이기 때문이다(박현우 외, 2013). 이에 반해 우리는 기술사업화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 부자들을 통해 기술사업화 연구에서 그간 답하지 않았던 기술사업화의 궁극적인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의 기술업 억만장자를 분석한다. 그런데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보완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세계적인 억만장자에 대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억만장자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이다. 두 사항은 본 연구와 무관해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중국의 기술업 억만장자에 대한 모든 모습이나 한명 한명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기술업 억만장자만 해도 숫자가 많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지면의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업 억만장자의 존재형태, 다른 업종 부자들과의 비교,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부의 형성과정, 세계적인 기술업 부자와의 비교 등을 다룰 뿐이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에서의 기술업 억만장자에 대한 거시분석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본 연구의 구성으로 이어진다. 2장에서는 억만장자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중국의 초기 시장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억만장자들이 등장했고, 기술업 억만장자가 배태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4장에서는 중국의 억만장자가 형성된 후 현재까지를 살펴본다. 이어 5장에서는 중국의 기술업 억만장자가 가진 특성을 미국과 나아가 시장경제화를 이루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며 살펴본다. 6장에서는 기술업 억만장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기될만한 변수들을 추출하고 그 변수들에 대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 7장에서는 본 연구와 기존 이론들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연구의 한계와 추후 과제를 기술한다.

본 연구는 특별한 이론적인 기반이나 분석모형을 전제하지 않는다. 가급적 사실의 전달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할 뿐이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서, 기술업 억만장자의 특별한 측면보다 전반적인 모습과 실태를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억만장자란 Forbes 리스트의 십억 달러(약 1조원) 이상 부자를 지칭하거나, 중국 통계에서 제시하는 100억 위안(약 14.6억 달러) 이상 부자를 지칭하기로 한다.

II. 기존연구

1. 억만장자 연구

억만장자에 대한 논의는 학계보다 업계에서 더 활발하다. 1996년 미국의 Forbes 잡지가 억만장자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도 1999년부터 胡潤百富榜이라는 부자들 리스트(<http://www.hurun.net/EN/Home>, 이하 Hurun 리스트)가 중국의 한 회사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리스트를 제공한 잡지나 회사에서는 매년의 리스트에 포함된 부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업계나 각종 매체에서 여기에 속한 부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언급이 많아 왔다.

이들 리스트보다 빨리 이루어진 학문적인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억만장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Siegfried and Roberts(1991)는 1988년의 74개국 최고 부자 200명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최상위 부자가 62개의 경쟁적인 산업에 위치해 있고 12개가 비경쟁적인 산업에 속해 있다는 점을 밝혔다. 큰 부자들은 독점적인 힘에 의해 부를 축적했으리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결과이었다. 또한 200명 중 48명의 부자가 토지나 부동산의 소유 혹은 개발에서 부를 축적했다는 점을 보인다. 경쟁적인 산업에서의 부의 축적 원인은 비즈니스 재능, 단기 불균형, 혁신의 이득, 행운 등의 기타요인으로 지적한다.

이어 Blitz and Siegfried(1992)에서는 미국의 부자, Siegfried and Round(1994)에서는 호주의 부자, Hazledine and Siegfried(1997)에서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의 부자를 비교한다. 이들 연구의 결론은 모두 비슷해 1) 부정확한 방법이나 독점적인 분야에서의 부의 축적은 생각보다 적고, 2) 대부분이 상속이 아닌 자수성가형이라는 사실이다.

반면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Forbes 리스트나 Hurun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다.

김문환·설성수(2018, 근간)는 억만장자 연구를 크게 넷으로 구분한다. 첫 유형은 억만장자의 분포에 관한 통계적 연구이다. Sinha(2006), Jayadev(2008), Drăgulescu and Yakovenko (2001), Ding and Wang(2007), Klass et al.(2006, 2007) 등이 속한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억만장자가 파레토의 Power Law를 따라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다. 두 번째 유형은 억만장자들의 개인적인 속성에 대한 연구이다. 억만장자들의 학력, 교육, 초기직업, 성별 등에 대한 규명이 이에 속한다. Wai and Rindermann(2017), Tomé(2017) 등이 있다. 셋째 유형은 억만장자를 결정하는 미시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지적된 결정요인은 혁신, 기업가 역량, 위험감수나 기업가정신, 기회 등이다. Levy(2003), Sviokla and Cohen(2015), 설성수 외(2017) 등이 속한다. 넷째 유형은 억만장자를 배출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Sanandaji and Leeson(2013), Henrekson and Sanandaji(2014), Torgler and Piatti(2013), Akisik and Kutluturk(2014), UBS/PwC(2016), Prinz(2016)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서는 기업자유도, 지적권 인정, 조세부담, 자영업비율, 벤처캐피탈 투자율, 부패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 민영화, 글로벌화 등이 지적된다.

우리는 여기에 다섯 째 유형을 추가하고자 한다. 김문환·설성수(2018, 근간) 혹은 본 연구와 같이 특정업종의 억만장자를 연구하는 업종연구이다. 특히 설성수 외(2017), 김문환·설성수(2018, 근간)는 기술사업화 이론은 시작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론인데, 기술업종에서의 억만장자 연구는 기술사업화론과는 연구방향이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거꾸로 보는 기술사업화론이라고 주장한다.

김문환·설성수(2018, 근간)는 세계의 기술업 억만장자들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첫째, 기술업종 부자들이 보유한 전체 재산이 다른 어떠한 업종보다 많다. 둘째, 개인입장에서 보자면, 기술사업화가 다른 어떠한 업종보다 가장 빨리 큰 부자를 만들 수 있다. 셋째, 기술업종도 국가별 특징이 존재한다. 미국은 SW, 플랫폼, SNS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은 HW에 특화되어 있다. 한편 독일은 SW, 한국은 게임, 대만은 HW, 인도는 SW에 특화되어 있다. 넷째, 사회 전체에서는, 기술사업화 이외 업종에서도 억만장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다섯 째, 기술사업화로 인한 큰 부자는 모든 국가가 아니라 제한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이 높다고 기술사업화로 인한 큰 부자가 나타나거나 많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2. 중국의 억만장자 연구

Hurun 리스트가 1999년 발표되었지만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부자에 대한 연구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물론 중국의 학술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중국 지식네트워크(CNKI: www.cnki.net)에서는 많은 글들이 검색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업계의 잡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 학술적인 의미의 분석이 가미된 글은 胡润 外(2003), 徐云波(2003), 李帆(2003), 陈小亮·陈彦斌(2016) 정도이다.

Hurun 리스트를 만든 당사자들인 胡润 外(2003)은 중국에서의 최초 부자 분석이라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리스트에 올라간 부자들을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억만장자를 미리 진입형(先人一步), 차입형(借船出海), 합작형(合作是金), 정책형(政策造市), 틈새형(见缝插针), 귀국형(海归创业), 남이 무시하는 형(独辟冷门) 및 지식형(知识创富)으로 구분한다. 미리진입형이란 특정분야에 먼저 진입해 큰 부를 축적한 유형이고, 차입형은 다른 사람의 자산이나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경우이다. 합작형은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말하며, 남이 무시하는 형이란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사업, 예를 들어 폐지에서 부를 축적한 경우이다. 귀국형은 해외유학파에 의한 사업유형이다.

중국의 부자들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스스로 구축한 부자라기보다 상당수가 국가 권력과 연계된 불법과 부패 기반의 부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胡润 外(2003)에서 언급된 부자 대부분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형 기업가이다. 예를 들어 쓰촨성의 류용하오(刘永好) 가족은 이미 1980년대에 양계장에서 사료업으로 진출한 부자로, 1990년에 중국 CCTV에 모범적인 기업가로 소개될 정도이었고, 유일하게 최근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리스트에 등장하는 부자이다. 이 가족은 후에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류용싱(刘永行)의 동광시왕(东方希望)과 다원화업종으로 분류되는 류용하오의 신시왕(新希望)으로 분가한다.

徐云波(2003)는 큰 부자들을 비전형, 핍박형, 자극형, 가족유전형, 순리형(민영화형), 도박형, 다혈질형, 행운형, 지식형이라는 9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글에서의 각각의 유형은 의미상 엄격한 구분은 아니다. 비전형은 앞의 미리 진입형과 같은 예를 들고 있고, 핍박형은 밀수와 같은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다 법적제재를 받고 자영업으로 부를 축적한 경우이다. 자극형은 부인보다 못한 직종에 속한 남편이 자극받아 사업에 성공한 경우이고, 도박형은 사활을 걸고 대규모 대출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형을 말한다. 다혈질형은 실패로 끝나는 충동형을 말하고, 행운형은 우연한 모방을 통한 성공을 말한다.

李帆(2003)은 앞의 두 글과 달리 부정적인 측면에서 중국 부자들을 조명했다. 특히 불법으로 일군 부자들을 조명하는데 부동산 허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대출금으로 상장사 인수 등의 전형적인 부동산 부자들의 부 축적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유형의 부자들의 낙마는 부패 관료, 금융범죄, 국유자산 유실이라는 3박자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언급한다.

陈小亮·陈彦斌(2016)은 중국의 역대부자들에게 대한 분석을 시도한 전형적인 학문적 연구이

다. 중국의 과거 부자들은 현재의 부자들보다 훨씬 큰 부를 축적했는데 이유는 관권에 의한 허가과 독점적 이윤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 전매제도가 형성되기 이전에 큰 부를 형성해 후대에 국가 전매제도가 형성된 계기를 만들어준 부자들도 많았다. 소금, 철, 화폐주조업 및 대외무역 등이 독점적 이윤을 제공한 전형적인 업종이다. 이들은 이러한 관상경제(官商經濟)의 폐해를 2단계로 설명한다. 먼저 관상경제는 그 자체로 혁신이 없는 축적모형이다. 권력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니 현재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독점 유지 노력은 사회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혁신을 억제하여 사회적인 진보를 억제하는 주된 제도이었다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근대 중국경제의 쇠퇴가 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부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불법과 부패 경향이 있어서 국가적인 혁신을 위해 독점적인 권한부여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III. 중국의 시장경제화

1. 개혁·개방정책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국의 오늘을 있게 한 개혁·개방정책을 확정짓는다. 개혁·개방정책의 원인은 내부 권력투쟁, 국제관계의 변화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1976년까지 10년간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경제가 지나칠 정도로 파괴되어 그대로는 국가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조현준, 2005). 이 정책은 크게 시장경제화(상품경제화, 1992년에 완전한 시장경제화 표현 등장)와 대외개방,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개혁으로 특징지어진다.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부터 가장 먼저 변하기 시작하는 영역은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와 경제특구 건설이다.

FDI는 국가 재정능력 약화, 대외기체능력 부족, 수출시장 확보, 외국기업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 해외의 높은 기술과 경영노하우 도입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고 평가된다. 개발자금 부족은, 1978년 확정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이라는 4대 부문 현대화정책에 1978-1985년 기간 소요자금이 약 6천억 달러가 예상되는데, 과거 28년간의 투자액과 동일한 규모이었다(조현준, 2005).

특구는 개혁·개방정책이 확정된 이듬해인 1979년 동부 해안지역인 심천, 주하이, 산터우, 샤먼 4곳에 설치가 결정되고 1980년 설치된다. 심천은 홍콩과 접한 지역이고, 주해는 마카오와 접한 지역이다. 산터우는 홍콩 위쪽에 위치하며 대만 남쪽 끝과 마주보는 지역이고 중국에

서는 700만 화교의 본 고장이라 평가되는 지역이라 해외 화교를 겨냥한 곳이다. 또한 샤먼은 대만 바로 맞은편 지역이다. 4개 지역 모두가 당시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와의 연계를 위해 설정된 지역이다. 앞의 세 특구는 광둥성에 위치해 있고, 샤먼은 푸젠성에 위치해 있다.

특구 입주기업들은 부지제공, 공장 건설자금 대출, 자본재 수입에 대한 비관세 혜택 등을 입었다. 그리고 수입 원자재의 관세면제, 수출용 국내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있었다. 또한 외화가 부족한 국가에서 외화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환율은 이중가격제라 외환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의 축적수단이었다. 심지어 허가와 다른 목적으로의 수입과 다른 항목의 수입, 밀수 등 불법수단도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자본축적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오죽하면 광둥성 고급관리와 무역업자의 부패 감시에 대한 긴급조치도 있었다한다(김용선, 2001).

경제특구는 종합적으로 경제활동 자주권이 부여된 독립된 행정구역이다. 이 제도는 시간이 흐르며 조금 더 확대되어 경제개발기술구로 발전한다. 경제기술개발구는 지역정부 산하의 신기술과 공업생산 우대정책 지역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경제개방구는 큰 지역으로 확대된 외국인, 기술, 시장 우대지역이다. 외국인이나 기업가들에게는 거의 비슷한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다. 세 특별지역은 점(點)에서 선(線)으로 나아가 면(面)으로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김소중, 1992).

〈표 1〉 중국의 초기 특별구

년도	지역
1980	① 심천, 주하이, 산터우, 샤먼 경제특구 지정
1984	② 연안 14개 도시로 확대 - 경제기술개발구 설립
1985	③ 장강삼각주(상해), 주강삼각주(광조우), 민남삼각주(샤먼) 경제개방지구
1986	④ 환발해권(하북성 연해지역과 산둥반도, 요동반도) 개방
1988	⑤ 해남성 경제특구(성금을 개방)

특별지역들의 기여는 FDI와 무역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10년 정도가 흐른 1990년에 중국의 무역수지는 드디어 흑자로 전환되고, 무역의존도가 30%를 넘기 시작하여 전형적인 무역의존 국가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FDI는 1993년과 1994년에는 홍콩과 대만 비중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이었고,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감소해 47% 정도를 차지하였다¹⁾. 홍콩과 대만의 본토진입은 중국이 필요한 기술, 기업관리 방식, 해외시장 진출 등 다방면에서 중국 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무역에서는 개혁·개방 초기에는 대외교역이 일본, 홍콩,

1)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마카오 순이었다. 이 순서가 1980년대 중반부터는 수출은 홍콩, 일본, 미국 순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 홍콩, 일본 순으로 변한다. 시장확대와 수출품 고도화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품의 고도화로 점차 전 세계와의 교역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한다(박정수, 2010).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환 역시 부를 축적하는 큰 수단이었다. 달러당 환율은 개방 초기인 1979년 1.554위안이었는데, 1984년 2.327위안, 1990년 4.783위안, 1994년 8.618위안 등으로 변한다. 또한 초기 외환은 수출과 내수사용의 차이라는 이중환율제를 통해 외환을 확보만하면 불로소득이 보장되었다. 1994년 이중환율제가 사라지기 직전인 1993년에는 달러화 공식환율이 5.8위안인데 내수환율은 8.7위안이었다(박정수, 2010).

2. 부동산과 기업 정책

부의 축적과 관련된 특징적인 내부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있다. 1980년 북경시에서 부동산개발을 시작하며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역사가 시작된다. 1982년에는 국무원에서 4개 도시에서 부동산 판매를 허용하고, 1984년부터 광둥성 및 충칭시에서 토지사용료를 징수한다. 1987년에는 심천시에서 아파트용지를 공개입찰하기 시작하며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시작된다. 또한 1990년에는 상해시에서 일반인의 급여에 부동산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 1987-1991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시범단계, 1992-95년은 조절단계, 1995-2002년은 안정적인 발전단계, 2003년 이후는 가격상승과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 시대로 평가된다(柴强, 2008; 周道炯, 1989). 그런데 1980년대부터 부동산은, 국가 소유인 토지의 허가권 부여나 민영화를 통해 권력있는 혹은 재빠른 사람들의 부의 축적수단이 되었다.

1980년대의 개혁·개방정책은 특구와 특별구 중심 정책이었다고 특징지을 수 있는데 1990년대는 기업정책 시기라 볼릴 수도 있다. 1989년 천안문사태로 인해 과거 체제에 익숙한 보수파가 득세하며 중국의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쳤고, 해외로부터의 FDI나 수출이 약화되는 등 경제가 주춤하였다. 이로 인해 1992년 유명한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등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화라는 공식 정책이 등장한다. 또한 서구 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해 홍콩자본가 룡이런(榮毅仁)이 국가 부주석(1993-98)으로 등장하여 시장경제화 정책을 지휘한다. 룡이런은 청나라 거대부호의 자손인데, 공산화에 동조하며 중국에 머물렀지만 대부분의 친척들은 홍콩이나 해외에 머무는 상태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며 외국의 자본을 직접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룡이런의 등장은 본격적인 시장화 경제정책의 상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경제의 활동주체인 기업에 있어서는, 1984년 주식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1988년에는 6,000여 기업이 주식제도를 채택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영기업들의 자금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성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이로 인해 1990년 상해, 1991년 심천에 증권거래소가 개장된다(김소중, 1992). 두 거래소가 동일한 유형의 주식을 거래하기도 하나 상해거래소는 국유기업이나 대형기업 위주라면 심천거래소는 첨단기업이 많다는 차이가 있다. 심천거래소는 주력기업과 중소기업(2004년 설치) 및 창업기업(2009년 설치) 거래가 구분되어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자본 기업은 3자기업(三資企業)이라 하는데 독자기업, 합자기업 혹은 합작기업을 말한다. 독자기업은 독자적인 운영이고, 합자기업은 자본만 들어오는 경우, 합작기업은 기술이나 운영까지 들어오는 경우이다. 3자기업이 본 연구에 중요한 점은 이들은 이미 천안문사태가 발생한 1989년에 약의 축, 부정의 근원, 사회불안 야기 등과 같은 비판을 받을 정도이었다는 점이다(김소중, 1992). 시장화와 함께 기업들의 부의 축적과 관리들과 엮인 부정 부패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IV. 억만장자 분포

1. 억만장자 데이터

중국의 억만장자 데이터는 크게 두 곳에서 제시된다. Forbes 리스트는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전 세계 부자를 대상으로 1996년부터 매년 1회 이상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순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리스트에서 중국 억만장자는 2000년부터 매년 1명 정도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Hurun 리스트는 상해에 와 있던 영국 회계법인 Arthur Anderson의 회계사 Rupert Hoogewerf가 1999년부터 발표한 리스트이다. 1999년에는 5천만 위안 이상의 부자가 언급되고, 2000년부터는 3.5억 위안 이상, 2004년부터 10억 위안 이상의 부자를 발표한다. 본 연구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Hurun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필요한 곳에서만 Forbes 리스트를 참조하기로 한다.

Hurun 리스트에서 100억 위안 이상의 부자는 2000년 1명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2004년 1명, 2005년 5명, 2006년 10명, 2007년 65명 등으로 급증하기 시작한다. 세계의 부자들도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하므로 세계와 중국의 큰 부자 증가추세는 비슷하다.

〈표 2〉 업종분류

Forbes지	김·설(2018)	본 연구
기술업	기술업	기술
에너지광석광산업	자원업	자원에너지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토목건축	토목건축	
음식료업	음식료업	음식료
자동차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금융투자업	금융업	금융업
의료, 유통, NGO, 서비스, 통신	인프라업	인프라
		의약
		유통
패션소매업	패션/소매업	패션
게임/카지노, 스포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다원화	다원화/재벌	다원화

미화 10억 달러가 기준인 Forbes 리스트에서 2000-2009년 기간 억만장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중국 1명에서 28명, 미국 52명에서 352명으로 6.9배, UAE 1명에서 6명, 이스라엘 2명에서 10명, 한국, 노르웨이, 쿠웨이트 1명이 4명 증가 등의 순서이다. 2009년은 2008년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억만장자 부침이 심해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2000-2017²⁾년 기간에는 가장 빠른 증가속도는 중국 1명에서 370명, 한국 1명에서 44명, 태국 1명에서 30명, 싱가포르 5명에서 22명 순이다(김문환·설성수, 2018, 근간).

Hurun 리스트에는 업종분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팀이 리스트에 등장한 부자들의 주된 부의 원천을 보고 업종을 결정하였다. 업종분류는 중국의 억만장자를 세계와 비교하기 위해 Forbes 리스트의 업종분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이 분류는 업종 숫자가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다. 김문환·설성수(2018, 근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orbes 리스트의 업종분류를 약간 압축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를 위해 설성수의 분류를 약간만 수정한 형태로 활용한다. 업종 결정 원칙은 일반적인 통계작성의 원칙과 같다.

2. 업종별 특성

Hurun 리스트에는 2004년부터 100억 위안 이상의 부자가 나타나 초기에는 최근 데이터와

2) Forbes 리스트 2018은 실제로는 2017년 말 데이터라 할 수 있음.

바로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업종별 분포만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표 3>은 Hurun 리스트에 의한 중국 억만장자 수의 분포 변화를 보인 것이다.

<표 3> 중국 억만장자 수 분포 변화 (%)

업종	2001(A)	2009	2017(B)	B/A
제조	21.3	15.4	22.0	103.4
부동산	25.5	32.3	17.8	69.5
의약	10.6	3.1	10.5	98.7
기술	-	6.2	10.5	
금융	8.5	7.7	9.0	105.8
자원	6.4	13.8	9.5	148.4
다원화	14.9	9.2	7.0	47.0
유통	2.1	6.2	5.0	235.0
인프라	-	-	2.5	
식품	6.4	3.1	2.3	35.3
엔터테인먼트	2.1	-	2.0	94.0
패션	2.1	3.1	2.0	94.0
수 합계	100.0	100.0	100.0	

주 : 2001년은 3.5억 위안 이상, 2009년과 2017년은 100억 위안 이상 부자로 절대비교는 곤란함.

2000년대 초반에는 부동산업과 제조업, 나아가 여러 사업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는 다원화 업종에서 전체 부자의 61.7%를 배출하였다. 부동산업과 제조업의 강세는 2000년대 말에도 이어지고, 비중은 줄었지만 2017년 현재에도 중국 부자의 근거 업종이다. 다른 업종에서는 의약업과 자원업의 변화가 크고, 다원화, 식품업의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다원화업종, 개도국 일반에서는 재벌로도 표현되는 이 분야의 부자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며 축소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술업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는 형세가 나타나고 있다.

증가세를 2001년을 100으로 보고 표현하면 유통업(235), 자원에너지업(176), 금융업(105), 제조업(103) 등의 순서로 부자들이 증가한다. 그러나 진정한 증가는 2001년 1명도 없었던 기술업에서의 증가라 할 것이다. 약 20년간의 비중감소 업종은 식품업, 다원화, 부동산업, 농업, 엔터테인먼트, 패션업 등의 순서이다. 부동산업이 아직 절대규모는 크지만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부호는 밀수, 2중 가격제, 토지개발에서의 권력결탁이 주된 축적 수단이라 평가된다(李帆, 2003). 여기에 국유재산뿐 아니라 국유기업의 매각 역시 부를 축적하는 주요 수단이라 지적되기도 한다(杜亮, 2003). 2중 가격제란 시장기능이 완전하지 않아 정부

관련 가격은 낮고 시장가격은 높은 차이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 연구는 부동산에서는 정부로부터의 토지불하, 이를 담보로 대출, 대출금으로 토지개발, 확보된 현금으로 상장사 인수 등의 절차로 부가 축적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闻泽(2004)은 부자문제는 금융문제라 표현하기도 한다. 심지어 관과 결탁하여 개발 후 매각시점 조작, 시장가격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용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된다(史建东, 2005). 이로 인해 2002년 국토부는 국가토지의 불하에 반드시 경매방식을 도입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한다. 나아가 국유기업 매각에도 여러 조치가 취해진다.

불법과 부패 나아가 동업자 사이에도 공정한 경제질서가 없었던 탓에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살해당했다(梁胜, 2003; 杜亮, 2003; 李帆, 2003; 蒋卫武, 2007). 이와 같은 나쁜 결과로 인해 중국 부호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Hurun 리스트는 중국부호도축방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인들의 큰 부호에 대한 인식은 아주 좋지 않았다. 인민대학의 한 조사에 의하면 합법적인 부의 축적이라는 응답은 5.3%에 불과하였다(李帆, 2003).

기본적으로 부동산업에서의 큰 부자는 권력이 없이는 형성될 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사실 부동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조업, 식품업, 전통 한의학 기반에서의 의약업에서도 향진기업의 민간 불하와 같은 방식으로 큰 부자가 등장하였고, 자원에너지업은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권력과 연계된 검은 돈이 많아지며 중국의 진정한 최고 부자는 누구인지 모른다는 지적이 등장하기도 했다(石述思, 2010).

〈표 4〉 중국 억만장자 재산 분포 변화 (%)

	2001	2009	2017
부동산	27.0	31.8	20.3
제조	26.2	16.9	18.4
기술	0.0	6.3	15.8
금융	9.6	8.4	9.3
의약	8.2	2.2	8.1
다원화	16.8	10.7	8.0
자원	1.9	11.6	6.3
유통	1.3	5.8	5.6
식품	5.4	3.8	2.6
농업	1.7	0.0	1.5
패션	0.9	2.6	1.4
인프라	0.0	0.0	1.4
엔터	1.1	0.0	1.4
계	100.0	100.0	100.0

주 : 상동

〈표 4〉는 연도별 업종별 큰 부자들의 재산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부동산업은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2001년 이후 현재에도 가장 큰 재산규모를 자랑한다. 큰 부자가 숫자로는 가장 많은 제조업중 부자의 전체 재산은 2위로 내려앉는다. 비중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분야는 기술업과 인프라업 정도이다.

3. 지역별 특성

중국에는 33개 성시가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성시(省試)를 언급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경시와 상해시, 광둥성, 저장성, 푸젠성, 장쑤성 등의 핵심지역과 동부, 동북부, 중부, 서부로만 구분해 살펴본다. 언급되는 개별 지역은 모두 동부 해안지역이며, 동부, 동북부, 서부, 중부는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구분과 같은 지역이다.

중국의 억만장자는 개혁 초기인 2000년대 초에는 아직도 동북, 서부, 기타, 북경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기타란 홍콩이나 마카오, 외국 거주 및 지역이 모호한 경우를 말한다. 개혁개방 이전 가장 잘 산다는 요녕성이 포함되는 동북지역에는 부동산, 의약, 제조, 자원에너지 등의 부호가 있었다. 그리고 충칭과 쓰촨성이 포함되는 서부지역에는 제조업, 부동산, 다원화, 금융업 등의 부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 순서는 곧 동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역전되어 2009년에는 광둥성, 북경시, 상해시의 순으로 부자가 많이 분포되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저장성이 추가

〈표 5〉 억만장자 분포 변화

	2001	2009	2017
광둥성	8.5	23.1	21.3
북경	10.6	15.4	16.8
상해	4.3	15.4	12.0
저장성	8.5	4.6	12.0
서부	19.1	6.2	7.5
동부	8.5	3.1	6.3
장쑤성	2.1	6.2	5.8
중부	4.3	3.1	5.3
푸젠성	2.1	6.2	4.8
기타	12.8	9.2	4.5
동북	19.1	7.7	4.0
% (계)	100.0 (47)	100.0 (65)	100.0 (400)

주 : 상동

되며 4대 지역에 62.1%의 큰 부자가 분포하고 있다. 4대 지역 부호들은 부동산업, 제조업, 기술업, 금융업이라는 4대 업종에서 숫자로는 62%, 전체 재산으로는 74%에 이른다.

동부 해안지역 기업들의 수출과 수입 증대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 주식시장의 개장으로 자산화 가능,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한 인구밀집과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히 광둥성과 저장성 및 상해시 지역의 부의 축적을 가속시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의 해안지역 경제특구, 1990-1991년 상해와 심천에 주식거래소 설치, 1997년 홍콩, 1999년 마카오 반환 등이 이 지역의 중요한 경제적 변화이다. 저장성은 과거부터 절강상인(浙江商人)이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상업이 발달하였고, 개혁개방 직후에도 이미 상해시를 넘어서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다.

V. 기술업 억만장자

Forbes 리스트에서의 기술업은 IT기반업이다. 이를 나뉘대로 구분하면 HW, SW, e비즈, 정보, 플랫폼, 게임 및 기타 IT로 구분된다. 정보는 각종 정보제공업을 말하며,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중국의 IT업종 3총사라 불리는 BAT(Baidu, Alibaba, Tencent, 이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 바이두는 정보업, 알리바바는 e비즈업, 텐센트는 플랫폼업으로 구분된다.

1. 기술업 분포

2001년에 기술업에서 거대부호로 등록된 중국 부자는 없다. 그러나 2003년 포털사이트인 왕이(网易)의 덩레이(丁磊)가 76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1위 부자가 되고, 게임회사 성대네트웍(盛大网络)의 천텐초우(陈天桥)는 10위로 40억 위안, 포털사이트 SOHO의 장차오양(張朝陽)이 22억 위안을 가지고 20위로 처음 등장한다.

100억 위안 이상의 기술업 부자는 2009년 4명, 2017년에는 42명이 등장한다. 2009년 4명은 플랫폼업 3명, 게임업 1명이다. 덩레이, 텐센트(腾讯)의 마화텡(马化腾), 바이두(百度)의 리옌홍(李彦宏), 천텐초우이다. 이 시점에서 알리바바의 마윈(馬雲)은 80억 위안으로 아직 우리의 분석에는 오르지 못한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2세로 기술업은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업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기술업 억만장자 분포를 보면 총 42명 중 북경 13명, 광둥성 12명, 저장성 10명으로

〈표 6〉 2017년 중국 부호 순위

순위	억 위안	이름	연령	관련기업	업종
1	2,900	许家印	60	恒大	부동산
2	2,500	马化腾	47	腾讯	기술
3	2,000	马云家族	54	阿里	기술
4	1,600	杨惠妍	37	碧桂园	부동산
5	1,550	王健林가족	64	万达	부동산
6	1,500	王卫	48	顺丰	유통(택배)
7	1,250	李彦宏, 马东敏 부부	50,48	百度	기술
8	1,150	何享健, 何剑锋 부자	76,51	美的	제조-전자
8	1,150	严昊家族	32	苏太华	부동산
10	1,100	丁磊	47	网易	기술

3개 지역이 35명, 그리고 7개 지역에 1명씩 분포되어 있다. 다른 업종의 억만장자에 비해 지역 별 밀집도가 대단히 높다.

2017년 중국 부자들의 순위는 〈표 6〉과 같다. 헝다(恒大)의 쉬자인은 2010년 이전부터 광조우 기반으로 세계적인 축구와 배구 선수들을 초청해 중국의 스포츠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투자자로도 유명하다. 이로 인해 2017년에만 보유주식의 가치가 5배 증가할 정도이었다. 부호 서열 5위인 부동산 재벌 왕젠린(王健林)은 프로축구에 투자한 최초의 인물인데 스페인 프로축구 구단 Atletico Madrid을 소유하고 있다.

2017년 기술업 구성은 〈표 7〉과 같다. SW업에 가장 많은 부호들이 있고, HW업, e비즈업, 정보업, 플랫폼업 등의 순이다. 그런데 평균재산으로 보면 플랫폼업, e비즈, HW업 등의 순서이

〈표 7〉 기술업 억만장자 구성(2017)

	수	재산 계(억 위안)	평균재산(억 위안)	평균연령
SW	10	1,977	197.7	52.6
HW	9	2,240	248.9	54.1
e비즈	8	3,796	474.5	46.0
정보	6	1,160	193.3	44.0
플랫폼	5	5,970	1,194.0	47.0
게임	2	380	190.0	58.5
기타	2	515	257.5	43
계	42	16,038	381.9	48.3

주 : 기타는 알 수 없거나 분류가 모호한 경우

다. 이 순서는 중국 IT업의 최강자 텐센트 및 알리바바와 IT제조업 등이 워낙 큰 것을 반영한다.

그런데 연령기준으로 중국의 부호들을 언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큰 부자들이 벌써 후손들에게 상속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云鹏, 2014). 张伟(2017)는 개혁개방기에 시작된 300여만 민영기업들이 상속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부동산 상속세를 20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이 많아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상속세는 아직 없다.

2. 제조업의 억만장자

큰 부자보유 재산규모로 부동산업 전체 2조 위안보다 작은 1조 7,670억 위안인 제조업에는 88명으로 가장 많은 큰 부자들이 분포되어 있다. 제조업 내의 업종으로는 전자, 자동차, 화공, 기계, 재료의 순으로 억만장자가 분포되어 있다(〈표 8〉). 전자업종은 29명의 부호가 전체 재산의 37%인 약 7천억 위안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업종 부자들의 연령은 제조업 평균 정도인 58.6세로 기술업보다는 일찍 시작된 부자들임을 알 수 있다.

2017년 냉장고 에어컨 등을 제작하는 광둥성 전자업체인 메이디(美的)의 허형젠(何享健) 부자가 1,150억 위안을 가지고 있고, 저장성 지리(吉利)자동차를 보유한 리수푸(李书福)가 1,100억 위안으로 2위이다. 광둥성의 반도체와 유색금속을 취급하는 정웨이(正威)그룹의 왕원인(王文银)은 800억 위안으로 3위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Hurun 리스트에 등장한 최초의 큰 부호는 초기에 사료업을 하는 쓰촨성의 류용하오(刘永好)가족이다. 2001년에는 요녕성 화신자동차(华晨控股)의 양룽(仰融)인데 언론에서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신비한 부호이었다(牛文文, 2002). 2001년의 제조업종 큰 부호는 9명인데 전자관련 업체는 없었다.

〈표 8〉 제조업 억만장자 구성(2017)

업종	부호수	총자산	평균자산	평균연령
전자	29	6,975	270.3	58.6
자동차	14	3,245	215.0	57.2
화공	14	2,720	210.3	58.0
기계	9	1,310	275.0	60.7
재료	7	1,720	163.8	67.5
기타	15	2,700	207.7	57.5
합	88	18,670	235.6	58.7

3. 미국 대비 기술업 위치

Forbes에서 2018년 초 발표된 미국의 억만장자는 총 582명, 총재산 3조 930억 달러이다. 이 중 기술업은 79명이고 총재산은 768억 달러로 전체 대비 수적으로 13.6%, 재산으로 24.9%에 달한다. 이 수치는 억만장자 수에서 2위, 이들이 보유한 총재산에서는 1위이다. 반면 중국은 제조업과 부동산업이 수적으로나 재산규모에서 1, 2위를 다툰다. 중국의 부자들은 아직은 개도국형 업종에 머물러 있다할 것이다.

〈표 9〉 미국과 중국의 상위 업종 비교(2017)

미국(10억 달러 이상)			중국(100억 위안 이상)		
	수 %	재산 %		수 %	재산 %
금융/투자	25.3	20.5	제조	22.0	18.4
기술	13.6	24.9	부동산	17.8	20.3
식음료	10.7	7.9	의약	10.5	8.1
엔터테인먼트	10.3	11.1	기술	10.5	15.8
패션/소매	8.3	10.7	금융	9.0	9.3
총계	582명	US\$3,093B	총계	400명	1,016조 위안

주 : US\$ 10억 = CNY 68억

4. 시장화 국가간 비교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중국과 같이 시장

〈표 10〉 시장화 국가와의 비교

년도	2006		2009		2018		2018/2006	
	숫자	\$B	숫자	\$B	숫자	\$B	수	\$B
중국	8	10.2	28	43.8	370	1,117	46.3	109.5
폴란드	3	4	1	1	6	13.8	2.0	3.5
카자흐스탄	2	4.7	2	2.2	5	14.4	2.5	3.1
체코	1	3	1	6	6	30.1	6.0	10.0
러시아	33	172.1	32	102.1	101	409.3	3.1	2.4
우크라이나	3	4.1	4	6.7	7	13.2	2.3	3.2
소계	50	198.1	68	161.8	495	1598	9.9	8.1

자료 : Forbes 2018

화를 적극 실천하고 있으므로 그들에 비해 중국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 지를 Forbes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시장경제화가 진행되고 억만장자를 보유한 국가들을 보인 것이 <표 10>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2018년 현재 숫자에서 46배, 재산합계에서 110배 정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나라는 시장화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빠른 체코가 겨우 숫자에서 6배, 재산규모에서 10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VI. 기술업 억만장자 결정요인

1. 추가 데이터

기술업 억만장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사용될 변수들의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중국에서는 억만장자 자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기술업 억만장자에 대한 선행연구도 1개밖에 없다. 또한 특정국가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시도한 경우가 없어서 각 변수들에 대한 선행적 검토도 어렵다. 유일하게 Kim and Seol(2018) 정도가 전 세계 각국의 기술업 억만장자 분포를 설명하며 인구, 면적, 1인당 GDP라는 변수를 이용하였다. 한편 위 연구를 발전시킨 김문환·설성수(2018, 근간)은 각국의 기술업 억만장자 분포를 분석하며 인구, 소득, 국토, 지식재산권 보호 지수, 기업활동 자유화 지수, 민주화 지수 및 벤처캐피탈 투자액 등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인구와 벤처캐피탈 투자액이 결정요인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특정국가 분석이고 이 연구들은 세계 전체 분석이라 기본적인 연구대상의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중국의 각 지역 데이터로 대체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 본 중국의 사회경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변수로 지역별 수출입 합계를 기준으로 본 개방도, 지역별 외국인의 직접투자(FDI), 각 지역의 홍콩이나 대만과의 평균거리를 추가하였다. 지역별 벤처캐피탈 투자액 역시 검토되었으나 지역별 통계의 신뢰도가 낮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어 논의를 생략한다.

대만이나 홍콩과의 거리변수는 대만의 타이페이나 홍콩에서 각 지역의 정부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합산한 변수이다. 이는 개혁개방 초기 대만이나 홍콩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거래가 대단히 중요했기에 포함시킨 변수이다. 각 통계는 中國統計年鑑에서 추출되었고, 2016년 데이터이다.

2. 상관분석

우리는 데이터의 속성을 알기 위해 1단계로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기술업의 역만장자 수는 수출입 합계로 보는 개방도와 상관계수 0.74-0.98로 상관도가 대단히 높았다. 반면, 지역별 1인당 소득, FDI 액수 등과는 0.5 정도로 비교적 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고, 다른 변수들과는 0.2 정도로 상관관계가 약했다. 이러한 관계는 기술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값은 더 커졌으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표 11〉 상관분석 결과

변수	기술업(A)
개방도(수출+수입)-1억 위안	0.926
FDI - 억\$	0.548
1인당소득 - 1만 위안	0.499
인구 - 만명	0.243
면적 - 1000km ²	-0.202
거리 - km	-0.231

특징적인 점은 지역별 면적이거나 대만 및 홍콩과의 거리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별 인구가 많을수록 역만장자 수가 적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구가 많은 허난성, 쓰촨성, 허베이성, 후난성, 안후이성 등에 제조업 부자들도 1-2명 정도밖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결과라 보여진다. 그 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 동부해안 지역의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정도에 대부호들이 집중된 결과이다. 북경, 상해도 결국은 동부 해안지역이다. 또 다른 특징은 관계가 강하지는 않지만 대만 홍콩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자 수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초기에 이 두 지역과의 합법적 교역 혹은 밀수가 동부 해안지역의 부의 축적에 큰 영향을 주었다.

3. 회귀분석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별 기술업 역만장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Kim and Seol(2018)이 사용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³⁾ 추정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최소자

3) 김문환·설성수(2018, 근간)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에는 벤처캐피탈 투자지수가 포함되는데, 중국에서의 지역별 투자액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 이 모형은 제외되었다.

승법 모형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들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모형의 설명력 역시 나빴다. 혹시 더 좋은 추정치를 보이는 변수들의 조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변수들의 집합을 모델로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였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보는 세계 각국의 억만장자 결정요인 분석이 중국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회귀분석 1차 모형 (횡단데이터 이용 기존연구 모형)

변수	절편	LogGDP	LogXM	LogFDI	Log인구	Log거리	Log면적
계수	-1.28	0.95	3.41	0.51	-3.96	-1.28	1.38
P-값	0.97	0.91	0.22	0.90	0.33	0.73	0.45

주 : R²=0.40, F=4.44, N=31개 지역

그로 인해 중국만의 독자적인 모형을 고려하였다. 중국 고유 모형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증가효과, 기술관련 주식시장 활성화를 상징하는 심천주가지수를 우선 고려하였고, 수출입을 지원하는 위안화의 대미환율을 변수로 채택하였다. 〈표 13〉에는 억만장자 전체와 기술업 억만장자 결정요인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표 13〉 회귀분석 2차 모형 (시계열데이터 이용 중국형 모형)

전체 억만장자 수			기술업 억만장자 수		
설명변수	계수	P-값	설명변수	계수	P-값
Y 절편	-736.7	0.00	Y 절편	-259.1	0.03
GDP(억Y)	0.00065	0.00	GDP(억Y)	0.00014	0.01
달러 환율	0.75468	0.00	달러 환율	0.30775	0.06
심천주가지수	0.04880	0.02	심천주가지수	0.00282	0.69
R ² =0.98, F=130.2, N=17(2000-16)			R ² =0.98, F=36.2, N=8(2009-16)		

주 : ()는 p-value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억만장자 수는 GDP, 주가지수 및 환율변수를 이용한 결과 전체 억만장자 수의 98%가 설명되고, 모든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도 2% 미만으로 좋다. 다만 기술업 억만장자 수에서 심천주가지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채택될 수 없었다. 원인은 비교적 쉽게 설명된다. 중국의 기술업 억만장자의 상당수가 중국의 기술업이 주로 등록된 심천증권거래소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 바이두는 미국의 주식시장, 텐센트와 샤오미 등은 홍콩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BYD는 홍콩과 심천의 주

식시장에 동시 상장되어 있다. 치후360은 미국에 상장했다 중국으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와 원인으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심천주가지수를 제외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천주가지수 변수를 제외했음에도 모형의 설명력은 98%로 높아지고, 개별 변수들의 유의수준 역시 좋았다. 그렇지만 이 두 변수만 가지고 기술업 억만장자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text{중국 기술업 억만장자 수} = -285 + 0.345 \cdot \text{달러환율} + 0.000147 \cdot \text{GDP}$$

(0.00) (0.00) (0.00)

$$R^2=0.98, F=64.9, n=8(2009-2016), ()=p\text{-value}$$

VII. 논의 및 결론

1. 요약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100억 위안 이상 억만장자는 2004년부터 등장한다. 둘째, 초기 부자들은 불법과 부패 기반의 부자가 많았지만 점차 자신의 노력에 의한 부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중국의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믿는 중국인은 극소수이다(石述思, 2010; 胡润研究院, 2015). 셋째, 부동산업과 제조업에 입각한 부자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이지만 기술업, 의약업, 금융업 부자들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넷째, 10대 부자만 놓고 본다면 부동산업 4명, 기술업 4명, 제조업과 유통업 각 1명일 정도로 기술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기술업 부자는 북경, 광둥성 및 절강성에 대부분이 집결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인접 지역으로 초기 개혁개방정책의 혜택이 집중된 지역이고, 북경은 국가 의사결정의 핵심지역인 결과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아직 부동산업과 제조업이라는 개도국형 억만장자의 분포를 보인다.

중국의 억만장자 결정요인은 전체는 GDP, 환율 및 심천주가지수이었고, 기술업 억만장자 수는 심천주가지수가 제외된 두 변수이었다. 이 지수가 제외된 것은 기술업 억만장자들의 주력 기업의 상당수가 다른 나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두 변수만으로 중국의 기술업 억만장자 수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2. 이론적 논의

기존 이론들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본 연구는 억만장자 연구의 제5유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김문환·설성수(2018, 근간)에서는 억만장자 연구유형을 통계분포, 개인속성, 미시적 결정요인, 제도적 결정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기술업을 대상으로 억만장자의 업종별 특성을 연구한 유형이다. 기술업 억만장자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라 할 것이다.

기술사업화론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본 연구가 거꾸로 보는 기술사업화 접근을 따르지만 기술사업화 과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기술업 억만장자들은 기술사업화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면 기술사업화론의 여러 고민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중국의 억만장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연구가 중국에서의 부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세계와 비교하며 분석한다는 점에서 새롭다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의 억만장자 형성과 관계되어 무궁한 분석주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환·설성수(2018, 근간)는 세계 각국의 기술업 억만장자 분포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벤처 캐피탈 투자액)와 시장규모(인구)로 설명된다는 점을 보였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결국 2000년대 이후 만개된 IT패러다임에 대한 투자, 즉 기술기회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기회라는 요인과 함께 중국의 특수성에서는 시장기회와 정책기회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장기회란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의 부의 축적기회를 말한다. 쓰촨성의 최초 시장진입자 유씨 형제, 주식시장이 처음 소개될 때 참여한 부자, 부동산시장이 열리며 참여한 부자들이 좋은 예이다. 둘째는 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때 정책을 제대로 활용한 경우이다. 한 국가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 그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면 큰 부자가 되었다. 중국의 부동산업, 제조업에서의 부자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3. 결어

본 연구는 중국의, 기술업의, 억만장자를 다룬다는 점에서 별개로 존재하던 세 유형의 기존 연구들을 결합시켜야 했다. 따라서 각 부분에서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나 지면 제약 상 혹은 다른 부분과의 조화를 위해 생략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론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역시 개별 사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점은 과정 중심의 기술사업화 연구에는 도움을 못주고 있다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개별 부자들의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고, 국가별

특수성에 대한, 나아가 소득수준별 특수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억만장자 일반의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이론체계가 도입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무엇보다 기술사업화의 결과에 대한 현 시대의 분석만이 아니라 통 시대적인 분석 역시 시도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문환·설성수 (2018, 근간), “기술업 억만장자 거시분석 - 거꾸로 보는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기술혁신학회지」.
- 김소중 (1992),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중국학논총」, 1: 33-84.
- 김용선 (2001), “개혁이후 중국 대외무역발전의 추이와 전망”, 「중국학논총」, 11: 159-184.
- 박정수 (2010), “개혁개방 30년, 중국통상정책의 추세와 전망”, 「중국학논총」, 31: 265-284.
- 박현우·설성수·조성복 (2013), 「기술사업화론-기술사업화를 넘어 기술비즈니스까지」,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 설성수·유창석·고창룡·최현호 (2017), 「가치창출과 분석」,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2017.
- 조현준 (2005), “중국 FDI정책의 목표, 전개, 성과 및 과제”, 「국제지역연구」, 1-39.
- Akisik, H. Y. and Kutluturk, M. M. (2014), “The Factors of Billionaire Generating Capacity of World Countries”, *Actual Problems of Economics*, 157(7): 470-479.
- Blitz, R. C. and Siegfried, J. J. (1992), “How Did the Wealthiest Americans Get So Rich?”, *Quarterly Review of Economic Finance*, 32: 5-26.
- Carlyle, E. (2012), How America's Wealthiest Get Rich, March,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erincarlyle/2012/03/13/how-americas-wealthiest-get-rich/#1b5b954a506e>.
- Ding, N. and Wang, Y. G. (2007), “Power-Law Tail in the Chinese Wealth Distribution”, *China Physics Letter*, 24: 2434-2436.
- Drăgulescu, A. and Yakovenko, V. M. (2001), “Exponential and Power-Law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Wealth and Income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Physics A*, 299: 213-221.
- Gurman, M., Rojanasakul, M. and Sam, C. (2018), How Apple Overcame Fits and Flops to Grow Into a Trillion-Dollar Company, August 2, <https://www.bloomberg.com/>

- graphics/2018-apple-at-one-trillion-market-cap/.
- Hazledine, T. and Siegfried, J. (1997), "How Did the Wealthiest New Zealanders Get So Rich?", *New Zealand Economic Paper*, 31(1): 35-47.
- Henrekson, M. and Sanandaji, T. (2014), "Small Business Activity Does Not Measure Entrepreneurship",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1(5): 1760-1765.
- Jayadev, A. (2008), "A Power Law Tail in India's Wealth Distribution: Evidence from Survey Data", *Physics A*, 387: 270-276.
- Kim, M. H. and Seol, S. S. (2018), "A Macro Analysis of Technology Billionaires", Proceedings of the ASIP 2018 Bangkok Conference, Thammasat University, September: 13-15.
- Klass, O. S., Biham, O., Levy, M., Malcai, O. and Solomon, S. (2006), "The Forbes 400 and the Pareto Wealth Distribution", *Economic Letter*, 90: 290-295.
- Klass, O. S., Biham, O., Levy, M., Malcai, O. and Solomon, S. (2007), "The Forbes 400, the Pareto Power-Law and Efficient Markets", *European Physics Journal B*, 55: 143-147.
- Levy, M. (2003), "Are Rich People Smarter?", *Journal of Economic Theory*, 110: 42-64.
- Petras, J. (2008), "Global Ruling Class: Billionaires and How They "Make It"",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2): 319-329.
- Pimentel, V., Aymar, I. M. and Lawson, M. (2018), *Reward Work, Not Wealth*, Oxford: Oxfam GB, January, DOI: 10.21201/2017.1350
- Prinz, A. (2016), "Do Capitalistic Institutions Breed Billionaires?", *Empirical Economics*, 51(4): 1319-1332.
- Sanandaji, T. (2013),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Billionaires", *Small Business Economics*, 42: 329-338.
- Sanandaji, T. and Leeson, P. T. (2013), "Billionaire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2(1): 313-337.
- Siegfried, J. J. and Roberts, A. (1991), "How Did the Wealthiest Britons Get So Rich?",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6: 19-32.
- Siegfried, J. J. and Round, D. K. (1994), "How Did the Wealthiest Australians Get So Rich?", *Review of Income Wealth*, 40(2): 191-204.
- Sinha, S. (2006), "Evidence for Power-Law Tail of the Wealth Distribution in India",

- Physics A*, 359: 555-562.
- Sviokla, J. and Cohen, M. (2015), *The Self-Made Billionaire Effect: How Extreme Producers Create Massive Value*, PricewaterhouseCoopers, LLT.
- Tomé, E. (2017), "Intellectual Capital and Billionaires – an Empirical Study", *Proceedings of the European Conference on Intellectual Capital*, April: 330-338.
- Torgler, B. and Piatti, M. (2013), "Extraordinary Wealth, Globalization, and Corrupti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9(2): 341-359.
- Treisman, D. (2016), "Russia's Billionair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6(5): 236-241.
- UBS/PwC (2016), *Billionaires Insights 2015: The Changing Faces of Billionaires*, Jan.
- Van der Panne, G., Van Beers, C. and Kleinknecht, A. (2003), "Success and Failure of Innovation: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7(3): 309-338.
- Wai, J. and Rindermann, H. (2017), "What Goes Into High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Education, Brains, Hard Work, Networks, and Other Factors", *High Ability Studies*, 28(1): 127-145.
- 杜亮 (2003), "中国富豪的罪与罚", 「中国企业家」, 11: 4-7.
- 梁胜 (2003), "2003中国富豪的"黑色流年", 「当代经济」, 12: 34.
- 刘杰文 (2000), "中国富豪刘永好的成功之诀", 「税收征纳」, 06: 30-32.
- 李帆 (2003), "中国富豪戴着镣铐起舞?", 「中国科技财富」, 12: 14-21.
- 闻泽 (2004), "2003中国富豪沉浮透视", 「当代经济」, 04: 17.
- 史建东 (2005), "成就中国富豪房地产业有金砖?", 「中国经济周刊」, 19: 26-27.
- 徐云波 (2003), "中国富豪九种创业类型", 「科技创业月刊」, 10: 55-57.
- 石述思 (2010), "中国富豪的15个特质", 「中国企业家」, 05.20., 100-101.
- 柴强 (2008), 「我国房地产制度改革与市场发展30年」, 09.
- 牛文文 (2002), "那一群隐身富豪", 「南风窗」, 01: 74-75.
- 云鹏 (2014), "中国富豪们如何实现财富传承", 「大众理财顾问」, 01: 40-41.
- 张伟 (2017), "中国富豪接班大考", 「中国经济周刊」, 32.
- 蒋卫武 (2007), "财富传奇的终结者—2007年度中国富翁落马榜", 「小康」, 12: 66-68.
- 周道炯 (1989),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管理大事记: 1949-1987」, 中国财政经济出版社.
- 陈小亮·陈彦斌 (2016), "中国富豪创新不足的历史溯源", 「学习与探索」, 12: 115-119.

- 肖易石 (2010), “透视中国富豪们创业中的八种模式”, 「科技与企业」, 01.06. 27-30.
- 崔晓林 (2016), “中国富豪出海玩球 3年15家海外俱乐部换成了中国老板”, 「中国经济周刊」, 33: 16-22.
- 胡润·唐建光·主编 (2003), 「财富时刻」, 海南出版.
- 胡润研究院 (2015), 「中国富豪特别报告(2015)」, 12-15.

손운호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대진대학교 및 중원대학교를 거쳐 한남대학교 탈메이지 교양대학의 외국인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설성수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기술혁신학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기술혁신학회의 자매학회인 Asian Society for Innovation and Policy의 회장이다. 또한 한국기술혁신학회를 모체로 탄생한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의 창설명예회장이다. 기술혁신, 기술가치평가, 기술정책 등에서 저서 20여 권, 논문 100여 편을 발표하였다.

부록 1. 중국의 지역별 주요 통계

	GDP 2016	수출 억\$	수입 억\$	인구 만명	FDI 억\$	거리 km	면적 천km ²	2017 부호		
								계	기술업	제조업
간쑤	27,588	265.8	183.9	2,610	75	1,998	404.09			
광둥	73,511	39,523	23,577	10,999	7,816	571	179.81	85	12	20
광시	37,862	1,517	1,635	4,838	437	1,053	237.56	1		1
귀주	33,127	312.5	63.1	3,555	237	1,269	176.15	2		
내몽고	71,937	290.2	478.5	2,520	411	2,043	1145.12	2		
닝샤	46,942	164.8	50.4	675	87	2,050	51.95	2		
북경	118,128	3,430	15,218	2,173	4,274	1,846	16.41	67	13	6
쓰촨	39,863	1,848	1,414	8,262	942	1,642	484.06	10	1	2
산둥	68,387	9,048	64,629	9,947	2,519	1,828	157.13	13	1	5
산시	35,444	655.3	444.8	3,682	422	1,711	156.71	2	1	
상해	116,441	12,098	16,564	2,420	7,342	931	8.24	48	1	7
섬서	50,877	1,045	931	3,813	561	1,537	205.79	2		
신장	40,241	1,031	135.8	2,398	97	3,619	1664.9	3		
안후이	39,393	1,880	1,056	6,196	673	966	140.13	3	1	1
요녕	50,815	2,839	2,873	4,378	2,133	2,089	148.06	8		2
윈난	30,996	760.4	556.5	4,771	330	1,604	383.19	1		
장시	40,285	1,962	676.3	4,592	777	778	166.89	5		1
장쑤	96,747	21,044	12,570	7,999	8,799	978	106.74	23	1	4
저장	84,528	17,666	4,540	5,590	3,199	806	105.4	48	10	23
지린	54,068	277.2	940	2,733	356	2,337	191.12	1		
텐진	114,503	2,918	3,859	1,562	2,226	1,737	11.92	4		
충칭	58,204	2,675	1,464	3,048	881	1,395	82.27	7		2
칭하이	43,381	90.4	10.5	593	75	2,195	717.48	1		1
티벳	34,786	31.2	20.4	331	23	2,804	1202.07	1		
푸젠	74,369	6,834	3,511	3,874	2,263	414	124.02	19		4
하이난	44,201	140.6	608.9	917	760	946	35.35	3		
허난	42,459	2,833	1,880	9,532	822	1,363	165.54	4		1
허베이	42,932	2,014	1,064	7,470	848	1,673	188.43	5		1
후난	46,249	1,174	566.5	6,822	580	827	211.85	4		2
후베이	55,506	1,718	881.6	5,885	993	943	185.89	3		
흑룡강	40,500	331.9	761.9	3,799	283	2,581	452.65	5		1

부록 2. 회귀분석 관련 변수

연도	전체 억만장자 수	기술업 억만장자 수	GDP (억₩)	달러환율 (억₩)	십천 주가지수
2000	1	0	99,066	827.84	402.2
2001	0	0	109,276	827.70	635.7
2002	0	0	120,480	827.70	476.0
2003	0	0	136,576	827.70	388.8
2004	1	0	161,415	827.68	378.6
2005	5	0	185,999	819.17	278.7
2006	10	0	219,029	797.18	550.6
2007	76	0	270,844	760.40	1447.0
2008	50	0	321,501	694.51	553.0
2009	65	4	348,499	683.10	1201.0
2010	62	5	411,265	676.95	1290.0
2011	129	9	484,753	645.88	867.0
2012	120	10	539,117	631.25	881.2
2013	149	20	590,422	619.32	1057.7
2014	246	16	644,791	611.90	1415.2
2015	332	43	686,450	649.11	2309.0
2016	343	51	741,140	664.00	1969.1